

# 돈 버는 태양광시설 뜯어내고 돈 들여 공원 조성?

### 광주시상수도본부, 시급성 떨어지는 지원배수지 공원화 추진 논란 위약금 수억 물며 3년만에 철거...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배치 주민들 "인근 아파트에 광주시 간부 거주"... 배경 놓고 의견 분분

광주시와 동구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지원배수지'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해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는 기존 태양광시설을 뜯어내고, 되레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아이엘 오퍼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최근 '지원배수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용역은 지원배수지 상부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8월 18일 에스이에스주와 광주시 상수도 햇빛발전소 건설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상수도 시설 부지 7곳(정수장 3곳, 배수장 4곳) 중 1곳이다. 발전용량은 총 4802kW에 이른다. 이후 2014년부터 2015년 2월 까지 태양광 시설 공사를 시행했고 같은 해 3월 6일부터 발전을 개시했다. 광주시는 7곳의 발전시설에서 정수장(2만3243㎡)과 배수지(6215㎡) 등 전체 상수도 시설 부지에서 올해 기준 1500여 만원의 임대료와 1억 4200여만원의 발전수익배당금을 받는 등 연간 1억 5000여만원 안팎의 수익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논란이 일고 있는 지원배수지에 조성된 태양광의 경우 시설조성비는 6억여원이며, 연간 수익금은 1000여만원이다. 부지 임대는 2015년부터 10년 경과 시점인 오는 2024년 12월까지이며, 10년 추가 연장 등 20년간의 운영기간이 보장돼 있다. 운영기간 만료 후에는 운영 효율을



광주시 동구 소태동 지원배수지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태양광을 철거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밝히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시상수도본부 지원배수지 공원화사업 비공개 일관 정보공개 청구 대부분 거부... "시민 알권리 무시" 지적

### 28일 지나 관리자 명단만 보내 시민단체 "경영상 비밀 해당안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수도본부는 지난달 13일 광주일보가 요청한 ▲광주시 상수도 부지내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계약내용·계약서·협약서 ▲태양광 시설 면적과 개수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임대료, 발전수익 배당금 ▲태양광 시설 담당자 ▲현재 매각된 태양광 시설 운영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대부분을 거부했다.

상수도본부는 통상 14일이 걸리는 정

☐ 햇빛발전소 담당자 현황

성명	변 근무지
조성민	투자홍보과
김민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홍준호	홍익
김원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광주일보가 지원배수지에 대해 요청한 10여 가지 정보공개 항목에 대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햇빛발전소 담당자 현황' 1가지 자료만을 회신했다.

비공개 청구 절차를 지연하며 28일 후인 지난 10일에서야 관리자 4명의 이름만 공개 여부가 공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인건국 제공항고소로 건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에 의한 감시를 고려해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명세 등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광주시상수도본부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사안이다"면서 "정보 공개 여부가 공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안된다"고 말했다.

## 광주 원정 보복 조폭 35명 중 33명 검거

지난달 광주로 원정 보복을 온 수도권 폭력조직원(광주일보 2018년 11월26일자 6면) 대부분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원정 보복에 연루된 광주·수도권 폭력조직원 35명 중 33명(수도권 27명·광주 7명)을 검거하고 이중 25명(단체장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폭력조직원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각 화동 한 모텔에서 광주지역 조폭 5명을 불러 감금·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지역 조폭들은 광주지역 조폭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술자리에서 사비가 붙어 광주지역 조폭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은 경기·서울·인천 등 6개파 조폭 27명을 광주로 불러 모아 원정 보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신생아 사망 배상 책임" 법원, 민사소송서 과실 인정

10시간 가량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영)는 27일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씨가 1억 5900여

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신 막달 무렵이던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이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이씨는 10시간 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 자연 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아이

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 부부는 이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과실이 인정돼 위자료료를 지급하게 됐다.

/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시66주년

## 해남 간척지 살해 피의자 검거

해남 간척지 수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광주일보 2018년 12월18일자 6면)의 살해 피의자가 붙잡혔다.

27일 해남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모(58)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해남군 산이면 인근 간척지 수로 공사 현장에 매장(깊이 1m)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시신은 지난 18일 오후 2시 20분께 굴착기 작업 도중 현장 근로자에 의해 목에 노끈이 감겨 있는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최근 공사장을 출입한 차량을 추적해 광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강풍·파도에 잇단 해양사고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바다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오후 2시께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북서쪽 500m 해상에서 소형 고무보트(승선원 1명)가 바람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선장 이모(42)씨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경비정 1척을 현장에 급파해 이날 오후 3시20분께 이씨를 구조했다.

진도군 서량항 인근 바다에서는 정박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송모(50)씨가 바다로 추락했다. 해경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 육지로부터 100m 떨어진 송씨는 구조됐다. 송씨는선내에서 술을 마셔 발을 헛디뎠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학폭 가해자' 황광희 매니저 퇴사

○...가수 겸 방송인 황광희(본명 황광희·30)의 매니저 유모 씨가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받아 소속사에서 퇴사하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도 편집.

○...27일 광희 소속사 본부이엔티와 MBC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부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리했으며, 광희와 함께 출연 중이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최대한 편집될 예정이다.

○...MBC는 "광희의 녹화 분량은 1회가 남아있다"며 "논의 결과 녹화에 최선을 다해 임해준 광희를 위해 남은 출연 분은 방송하고자 한다. 시청자가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니저 분량은 최대한 편집하고 광희의 캐릭터에 집중해 편집하고 방송할 예정"이라고 해명.

/연합뉴스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로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시공전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H.P (062)511-0444

목포 여수 순천 광양 (061)284-048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